



주 제:	“영광의 변모”	“사순 제 2 주일”	2008년 2월 17일
복음 묵상:	마태 17,1-9	창세 12,1-4 7	2 티모 1,8 1-10

사순절은 자신을 희생하고 보속하고,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기입니다.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길을 바치며, 자신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는 이 때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라니, 뭔가 잘 어울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직 영광의 모습을 보기에는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기에는 너무 빠른 것이 아닐까요? 원래 주님의 거룩한 변모축일은 8월 6일입니다. 그 때의 장면과 복음 말씀을 우리는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제생활 초기에는 오늘 복음이 사순절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저야 할 십자가도 많고, 매일 매일이 전투 같으니 생존경쟁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런 어려운 세상에 신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인생고에서 생존경쟁에서 지치지 않도록 달랠시키고 격려하기 위해,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너희도 시련과 고통을, 신앙과 기도로 잘 참아내면 이렇게 영광스럽게 승리하리라는 믿음과 희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굶은 날이 있으면 맑은 날이 있고, 슬픈 날이 있으면 기쁜 날이 있듯이, 이 사순절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 부활절에 기쁘게 웃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안동 오성백 신부님 강론중에서)

1. 성가대 소식

1) 이제 부활절이 앞으로 6 주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년 부활 미사곡은 J.A. Korman의 **성체 현양미사곡**으로 정했습니다. 각 파트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본당 웹에 올려놓았으니 틈나는 대로 열심히 연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라”**와 **“문들아 머리들라”**를 본당 웹에 올려놓았으니 같이 연습해 주십시오.

2) 부활절 성가 연습 스케줄

2/17: *미사곡 * 거룩한 주님 * 문들아 머리들라 * 기억하라 * 한 시간도 * 주는 저산밑에 백함

2/24: *미사곡 * 거룩한 주님 * 문들아 머리들라 * 기억하라 * 한 시간도

3/2: *미사곡 * 거룩한 주님 * 문들아 머리들라 * 기억하라 * 성주간 성가 * 호산나

■ 사순 특강 및 십자가의 길

사순시기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7:30 분부터 십자가의 길과 미사 중에 특강이 있겠습니다.

* 사순시기 동안 금요일 아침 미사는 없습니다.

사순 제 2 주(2월 22일) 특강 : 김재섭 신부님 (프란치스코회)

사순 제 3 주(2월 29일) 특강 : 황정연 신부님 (예수회)

사순 제 4 주(3월 7일) 특강 : 문중원 신부님 (서울 대교구)

* 특강 (무지개 원리) 3월 4일(화) : 차동엽 신부님

■ 찬미 미사 및 치유 예절

일시 : 2월 19일(화) 7시 30분 저녁 미사

Charlie and Betty Peissner 께서 치유 예절을 해주십니다.

■ 모든 성가대 가족님들은 이 사순 시기에 풍성한 전례와 특강에 참석하시어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1분 명상

“오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좋은생각” 중에서)



가난해도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모든 것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남이 보기 부러워 할 정도의 여유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행복해 보일 듯 하나
실제로는 마음이 추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을 아는 사람은 행복에 조건을 알지만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사람은 만족을 모를 터이니
마음은 추운 겨울일지도 모르겠네요

몸이 추운 것은 옷으로 감쌀 수 있지만
마음이 추운 것은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사는 기준이 다 같을 수는 없지요

행복에 조건이 하나일 수는 없답니다
생긴 모양새가 다르면 성격도 다른 법
가진 것이 적지만 행복을 아는
당신이면 좋겠습니다

비록 부유하지는 않지만
남과 비교하지 않는 당신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행복에 조건이기 때문이지요

남과 비교할 때 행복은 멀어집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행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